

신세계 E-MART 여주물류센터 Cisco PTT(Push to talk) 적용 사례



2008년 7월 18일 세계최대 물류처리능력을 갖춘 신세계 이마트 여주물류센터가 개장하였다.

총1240억원이 투자된 신세계 이마트 여주물류센터는 처리능력에서 월마트 브록스빌이 보유한 2만4000Box/시간 보다 1만2000Box/시간 앞선 3만6000Box/시간으로 세계 최대 물류 처리능력을 자랑한다. 개장 초에는 50여개 이마트 매장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지만, 2012년에는 수도권, 충청, 강원, 전북, 경북 등 90개 점포에 대응이 가능해져 E-MART 물류의 허브센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.

이번에 Cisco PTT(Push to talk) 솔루션이 신세계 이마트 물류센터에 도입이 되어, 이를 통하여 이동 근로자들이 사용하던 TRS(주파수공용통신) 단말기를 대체하게 되었고 편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.

PTT 란 무선 IP Phone(WiFi IP Phone) 에 무전기 기능을 탑재한 후 단말기 그룹을 설정하여 일대일 또는 동보전송등이 가능하도록 듀얼모드(내선전화/무전기) 로 동작하는 기능이다. 여주물류센터의 경우 Wireless LAN 환경에서 무선 IP Phone 을 사용할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TRS에 비해 높으나, 2.4년 정도 사용시에는 TRS 사용 비용이 오히려 초과 되며, 현재 신세계 주요 관계사의 경우 IP교환기가 도입(죽전백화점) 및 검토 중(이마트 성수사옥)으로 IP Phone 도입 시 UC (Unified Communication) 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다양화 및 업무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며, 기능적 측면 / 투자 및 유지비용 /향후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첨단 여주물류센터의 상황에는 최신 기술인 IP Phone(Wi-Fi)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.

그 외에도 TRS 단말기의 단점인 단말기크기, 무게, 배터리사용시간, 음영지역통화불능, 근로자와 관리자간 통화제한, 연간 전파사용료 지출 등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Cisco 무선 IP Phone(모델명 : CP-7921) 으로 개선하여 근로자들의 업무 편리성과 월 사용료 지출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높이 평가하였다.

현재 이마트 물류센터에는 이동 근로자 뿐만 아니라 보안요원들까지 CP7921 을 약 60대 정도 운용하고 있으며, 사무실에서도 유선 IP Phone 을 통하여 음성을 데이터망에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, 향후 이마트 전 매장을 대상으로 TRS 단말기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확산할 계획이다.

